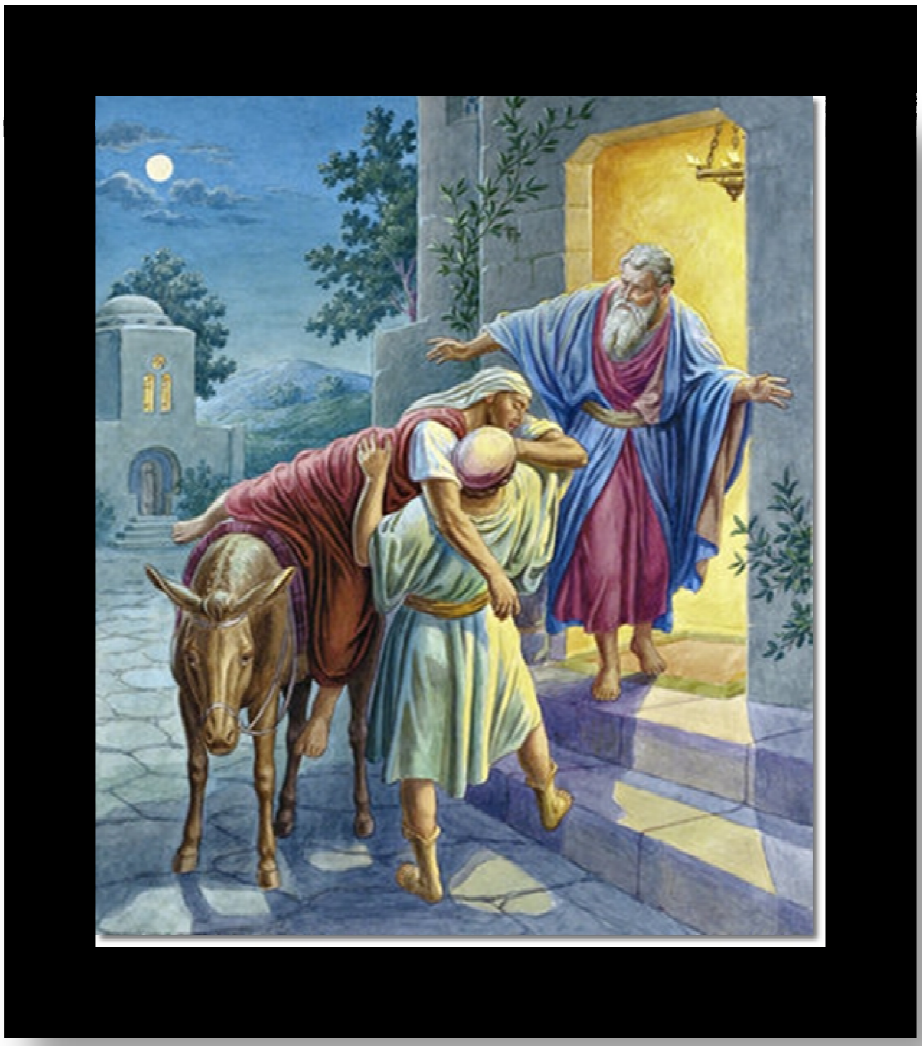
2013 7.14 연중 제 15 주일

제 1 독서 : 신명기 30,10-14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어,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수 있는 것이다.>

제 2 독서 : 콜로새서 6,14-18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 되었습니다.>

복 음 : 루카 10,25-37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의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 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혹시 이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마음이 찔끔하신 분은 안계실까요?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가계십니까? 아니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내가하고 싶은 것만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가운데에는 어느누구도 그런 걱정을 하며 사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분이 계시다면 저에게로 오십시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온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오늘처럼 율법교사가 아니라, 바리사이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한다.’”** 이러한 **하느님의 계명** 이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 담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때에는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오십년을 살았어도 칠순이 되었어도 아직도 발견 하지 못하는 많은 재능과 은총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입과 마음에, 보물같은 하느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냥 세속의 먹이 사슬 속에서 동물의 왕국의 법칙만을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는 하느님의 계명을 찾아 내어 이를 실천해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께로 돌아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심어 주신,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을 실천 해야하겠습니다. 율법교사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도맞은 사람의 예을 들어가시며 되물어 보십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하고 율법교사에게 물어 보십니다.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였을 때에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꽤긴 거리를 걸어서 제가 가야할 다음의 교환역으로 자리를 옮겨 막 지하철을 탈 무렵이었습니다. 한 건장한 사람이 나를 막아섰고 두명은 나의 양팔을 움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명이 나타나 나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비상금을 털어내 유유히 걸어서 역을 빠져 나가는데 …. 그 많은 사람들중에 어느누구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시실이지만 그자리에는 경관도 있었는데 그 마저도 자그마한 동양인이 폭도들에게 강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때에 나를 도와준 이웃들에게서 사랑을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며 도움을 주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진정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주어야겠습니다. 때로는 이웃이 없는 경우가 나의 탓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웃이 되어 주려고 다가오는 이들을 내가 내친 경우도 있을 터이고, 이웃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하여 내가 고마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쓰다 남은것을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던지 ? 맛도 없는 음식을 나에게 주었다느니 ? 하면서 불만을 가진다면 더이상 이웃의 사랑이 나에게로 다가오지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현 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히 고마음을 못 느끼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입니다. 일을 끝내고 들어 갔을때에 아내가 준비하여준 저녁 밥상에 대하여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집에 전구를 갈아 준다면, 아내 역시 이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함 속에는 사랑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왜 ? 눈을 뜨게 해 주셨으니까요. 아침에 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쉬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냐고요 ? 오늘도 저에게 태양을 주셨고 맑은 공기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사실, 전에는 일어날때에 이런 저런 생각들로 찌푸둥한 느낌을 갖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손해는 누가 봅니까 ? 바로 저 입니다. 영생의 삶은 **바로 지금** 시작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입과 마음에 품고 사느냐 ? 아니냐 ? 즉, 천국의 삶이 연장이 되느냐 !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삶이 연장이 되느냐 !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여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중에 가장큰 선물은 **의지** (WILL) 입니다 . **나도 바꾸고 나를 통해 이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닉 부이치치입니다. 나에게 천국의 삶이 지금 시작 된다면 바로 이것이 영원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의지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 감으로써 **천국의 삶을 지금 시작 한다면** , 바로 이러한 천국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어,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30,10-14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10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11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12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13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14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15-20

그리스도 예수님은 15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맏이이십니다. 16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18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맏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19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20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5-37

그때에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27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2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29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30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31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2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34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